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가운데)가 13일 사회적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찾아 나섰다. 이날 우범기 부지사가 방문한 농업회사법인 하봉마을(주)(대표 김수정)은 전주시 평화동에 있는 농촌기반 사회적기업이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사회적기업 현장을 찾아서

“도·농 상생, 지역경제 순환 중요성다시 일깨워”

우범기 정무부지사, 농업회사법인 하봉마을 방문

선순환 지역경제 실현... ‘눈꽃김부각’ 소비자 인기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13일 사회적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찾아 나섰다. 이날 우범기 부지사가 방문한 농업회사법인 하봉마을(주)(대표 김수정)은 전주시 평화동에 있는 농촌기반 사회적기업이다. 지난 2017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하봉마을(주)은 지역 농민이 재배한 농산물을 질 좋은 먹거리 제품을 생산해 농가를 돕고 주민고용으로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선순환 지역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향토산업 마을로서 마을주민과 함께 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장애인, 치매 어르신들에게 제품을 기부하는 등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하봉마을은 규모가 작은 기업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강한 기업임이 주목할 만하다. 코로나19의 위기를 뚫고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전국의 손꼽히는 김부각 기업 중 하나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소비자들을 사로잡은 눈꽃김부각은 최근 해피빈, 라이브방송에도 소개

돼 큰 호응을 받았으며, 2017년에는 대만에 수출, 각종 박람회, 흡소핑 방송에서도 2차례 완판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수정 하봉마을 대표는 “전북도의 각종 지원정책으로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의 사회적경제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도 정무부지사는 “코로나19와 농업의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손수 일구어주시는 하봉마을에 감사하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 지역경제 순환의 중요성을 다시 알게 됐다”고 밝혔다. 덧붙여 우범기 부지사는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사회적기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순창 풍산·유등 배수개선 ‘청신호’

최영일 도의원, 배수개선 신규사업 선정 환영

해마다 여름철 물 폭탄으로 상습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순창군 풍산면과 유등면 일대가 배수개선 신규사업 선정으로 사업추진이 청신호가 켜졌다. 이에 지역 내 상습 침수 농경지의 재해 발생을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순창)은 13일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컸던 풍산·유등면 일대가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됐다”며 “이번 배수개선사업 선정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

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순창 풍산면과 유등면 일대가 잠마찰만 되면 침수로 인한 피해가 막심했다”면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인 환경부 앞 1인 천막시위와 한국농어촌공사 항의방문 그리고 순창군민들의 적극적인 서명활동 등이 힘이 됐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최영일 의원은 “답은 현장에 있고 순창군민들과 함께 한 풍산면·유등면 일대 배수개선 추진사업이 선정돼 매우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막을 구석구석 다니며 주민들이 재해 걱정 없이 안전하게 농사지를 수 있도록 대책미련 등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청년 겪는 어려움 공감 특단 대책 강구하라”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우리 정부 들어 청년 기본법을 만들고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나 사적에 불과하다”며 “무엇보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바란다”며 이렇게 주문했다.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2030세대 지지층 이탈 현상이 확인되자 이에 문 대통령이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과거 외환위기 때 청년들은 막힌 취업문과 구조조정 한파 속에 IMF(국제통화기금) 세대로 불리며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금의 청년들도 그 때보다 못지않은 취업난과 불부양한 미래로 코로나 세대로 불리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자리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데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며 “경제 회복기에 들어선 만큼 이 기회에 민간 기업이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최근 벤처 열풍으로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다. 청년들이 창의적인 일에 마음껏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도 역점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특히 질 좋은 일자리 위한 직업 훈련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망한 중소벤처 혁신 기업들이 일할 청년이 없다고 하소연한다”며 “디지털 데이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분야 등 미래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 훈련을 강화해 일터의 일자리를 늘려 나가는 노력을 특별히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1



전북도의회 나기학(군산1)·김종식(군산2)·조동용(군산3)·문승우(군산4) 의원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에서 군산지역 고용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군산지역 고용 창출·경쟁력 강화 모색

도의회 군산 의원들, 전북인력개발원서 간담회

전북도의회 나기학(군산1)·김종식(군산2)·조동용(군산3)·문승우(군산4) 의원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에서 군산지역 고용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4명의 도의원과 군산 부시장 등은 전북인력개발원의 주요 현안 사업 등을 청취한 뒤 기업의 맞춤형 인력수급을 통해 잠재한 군산시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인력개발원은 지역거점 직업훈련기관의 역할 수행을 지속해 군산지역 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 군산시의 지원 연장을 요청했다. 현재 개발원은 정부의 예산삭감과 양성훈련 모집률 감소 등에 따른 경영 악화로 2019년 폐원을 결정했으나, 전북도와 군산시가 10억원씩 총 20여 원을 지원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시각장애인 투표권 보장·국민 기본권 강화 계기

민주 김윤덕 의원, ‘점자형 우편투표용지 제공’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 갑)은 지난 7일 거소투표 우편을 통한 시각 장애인에게도 점자투표용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거동이 불편해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는 시각장애인에게는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기표를 할 수 밖에 없어 비밀투표권을 침해당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우편을 통한)를 하는 시각장애인에게도 특수투표용지를 제작해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해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거소투표 시각장애인에게도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현행 규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정안으로 시각장애인에게도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민 모두의 기본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2020년 9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거소투표하는 시각장애인에게도 점자투표용지 등을 포함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유호상 기자

민주 당권 레이스 ‘개막’

송영길·우원식·홍영표, 당대표 출마 선언

오늘부터 이틀간 ‘출사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인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이 14일부터 속속 출마선언을 하면서 당권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당사에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다.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들여왔다.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86 운동권으로 현재 국회 의교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다. 우 의원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원내대표를 지내며 당정관계

를 조율했다. 서울 출신으로 당내 최대 의원인 임인태(더미래)와 민주당화국연대(민평련)에 속해 원내에 발이 넓다. 이해찬 전 대표가 후임회장을 맡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상징 격인 당 ‘을지로위원회’ 조태웅 회장을 역임했다. 홍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상향실장을 지냈다. 2018년 원내대표를 맡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며 범여권 군소 정당들과 4+1 공조를 이뤄냈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송 의원과 인척 맹주를 놓고 경쟁관계에 있다. /뉴스1

“더 많은 복지·더 풍부한 공동체 의식, 사회적 확산돼야”

기본국가연구포럼 창립총회... 기본국가 운영 정책개발 목적

이재명 경기지사 “경제적 기본권 확대, 새 미래 준비하는 길”

‘기본국가연구포럼’(이하 연구포럼)이 13일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북 전주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기본소득과 기본국가, 지역기본권을 의제로 정책개발과 연구를 해 나갈 ‘기본국가연구포럼’은 두 달여의 준비기간을 통해 80여명의 대학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기본국가 운영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는 조직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립된 연구포럼은 향후 지역을 넓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연구포럼은 월별토론회, 세미나 등을 열어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기본교육, 지역기본권을 통한 미래 비전을 알리고, 정책을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창립식은 줌(ZOOM)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50여명이 참여, 진지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진행됐다.

심상일공동대표로 선출된 원용찬 교수는 “우리는 사회적 공동 부와 가치를 모두 함께 누리고 어디에 살든 동일한 삶의 권리를 향유하는 기본국가를 지향한다”면서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전 북지역의 기본권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길 비전과 정책을 연구해 중요한 국가이슈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영상 축사에 나선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우리사회는 현재 코로나 19가 본격적으로 촉발한 저출산과 고령화, 4차산업의 도래 저성장파 양극화라는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피할 수도 없고 완화할 수도 없는 심각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며 “더 많은 복지와 더 풍부한 공동체 의식, 지금보다 더 나아간다는 의지가 정치, 사회적, 문화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러한 공동체 문화의 확산이 바로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할 것이고 공동체 문화의 근본은 공정성에 있으며, 공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고, 함께 가자고 할 수 있느냐”며 “기본국가연구포럼이 이러한 문제를 함께 연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상을 통해 축사에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재는 사회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경제적 기본권 확대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다”면서 “경제적기본권 확대는 격차와 불평등해소,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경제적기본권 확대는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국가연구포럼이 정책개발과 연구활동으로 경제적기본권 확대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본국가연구포럼’은 원용찬(전북대 경제학과), 고규진(전북대 독문과), 최광수(우석대 보건의료학과)교수를 상임공동대표로 선출하고, 본격활동에 들어갔다. /유호상 기자

택지개발촉진법 개정령안 등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임대주택 건설 등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업체들이 공공 택지를 우선 공급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주택용지를 공급하는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

고 있다. 특히 계열사 동일 입찰과 건설사 개발이 편중 등으로 그동안 문제가 됐던 추정 방식’을, 참여업체의 사회적 기여 등으로 평가하는 ‘경쟁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스토강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강범죄 처벌법) 공포안’ 등 77건을 공포하기로 했다. 스토강범죄 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근·따라다니기,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기, 연락, 물건 보내기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강을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절차와 가해자 처벌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심의·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의 안전 심의 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 봄 한복문화주간’ 운영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유호상 기자